2026 읍면 문화마을 <온다> 심의 총평

읍면 문화마을 <온다> 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여러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,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남고 풀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좀 다른 시선과 내력을 요구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마을과의 만남을 고민하며 지원해주신 예술단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.

올해 지원 유형이 다양화되었고, 새롭게 컨소시엄형이 추가 되었습니다.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, 마을 주체와 예술 주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며 상호 확장되길 기대하는 고무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.

심의를 진행하며 다년간 마을과 만나온 예술단체들의 변화와 성장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. 예상보다 지원이 많았던 컨소시엄 유형에서는 기대만큼의 구조나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, 시작 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유형별 특성을 보다 명료화하고 각 트랙에 맞는 적절한 지원방식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